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건설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건설중  
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  
에서 광천닭공장건설지휘부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리에 새로 건설  
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알과 고기를 년간 수천t,  
수천만개나 생산하게 되는  
현대적인 닭공장이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  
복을 위해 언제나 만짐을  
결머지시고 고심어린 사색

과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가금부문을  
추켜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닭공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나  
라에서 현대화되었다고 하는 닭공장들은  
거의나 20여년전에 꾸려놓은 닭공장들로  
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시  
면서 전국의 닭공장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표준공장을 당에서  
직접 맡아 건설할것을 결심하시고 강력  
한 당내건설력량과 인민군인건설자들  
을 파견하여주시였다.



사료를 보장하는 농장들  
도 농촌문화의 본보기단위  
로 잘 꾸리는 사업을 병행  
하여 립체적으로 밀고나가  
며 이 농장들의 영농사업  
도 잘 도와주어 앞선 농  
장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운영단위에서 현대적인 닭  
공장을 맡아볼수 있는 지  
도일군력량을 강화하고 축  
산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로 종업원대렬을 잘 꾸리  
며 선진적인 설비들을 원만  
히 다룰수 있는 기술자들  
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미리부터 예견성있게 해나  
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이 우리 어린이들  
과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  
가 높은 고기와 알을 더 많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닭공장건물들의  
건축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  
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건설진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대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  
자들의 로력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금부문의  
본보기로 건설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설비는 물론 건축물도 표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과학기술적요구  
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광천닭  
공장에 현대화, 자동화, 집약화수준이 월  
등한 가장 선진적인 가금설비들을 일식으  
로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차리는데 맞게 건축공사의 질  
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  
시며 남은 공사를 일정에계획대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  
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닭공장건설  
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당에서  
그토록 마음쓰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공장  
으로 크게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총실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천닭공장에

이 보내주려는 조선로동당의 리상을 실현  
하기 위한 보람찬 건설투쟁에 적극 떨쳐  
나 광천닭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쯤는듯 한 무더위  
속에서도 건설장에까지 찾아오시어 공  
사를 다그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되어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  
로 받들어 반드시 제기일에 완공의 보고  
를 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전승의 환희를 세겨주는 지하철도역

## ◆ 전승 역을 찾아서 ◆

평양의 려명거리입구에는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는 지하철도역인 전승역이 자리잡고있다. 최근에 이 전승역도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개진되어 오가는 길손들을 반겨주고있다.

지상역사의 흰 지붕을 떠받치고있는 붉은색의 기둥도 품위가 있고 천정과 벽면이 부각장식으로 되어있는 지상역사의 내부도 흠잡을데

가 없다. 밤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포를 형상한 천정조명장식은 전승의 그 환희로왔던 축포인듯싶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용사들에게 안겨주는 꽃보라인가 크고작은 별찌모양들이 새겨진 계단승강기의 벽면들도 이채를 띠고있다.

각종 사진작품들과 조영등으로 더욱 현란하고 뜻있게 꾸려진 지하철도역공간을 지나면 지하철도역이라는 역명이 나진다. 중심역면의 대형벽화는 철세위인의 현명한 명도아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인민의 환희와 긍지를 격동속에 돌이켜보게 해주고있다.

지하철 기둥들에는 전희의 나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온 영웅전사들의 모습들이 새겨져있다. 지하철도역구내의 그 어디에서나 전승의 력사가 살아

# 국가로부터 받는 살림집 혜택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의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의 각지에서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심지어 3년 계획 공사계획에 따라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백수십동의 살림집조공공사가 계속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평양국제비행장 주변에 1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평안북도 통천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도 많은 살림집들을 건설하고있다.

이렇게 건설되는 살림집들은 모두 국가가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고있으며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새도 동자가 있어야 깃을 편다고 사람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배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도처에 일떠서는 문화주택들도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례지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평범한 일이다. 새 살림집의 문패에 자기의 이름을 보란듯이 새기고 살면서도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려명거리에서 살고있는 리옥금녀성은 새집들이할 때의 국민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였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쓰고살려면 수십만USS를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그것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고있다니 참으로 믿기 어렵다.》

《중결같은 살림집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찬란의 목소리들은 려명거리에서만 울려나오는 것이 아니다. 창건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삼지연시의 살림집들과 중평남



# 가볍고 질 좋은 운동신발

나라의 신발공업부문에서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되고있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발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이곳 신발공장에서는 도안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은 물론 현대적인 건축설비를 갖추어놓고 신발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경쟁의 불길을 일으켜 종목별 전문체육신발과 함께 연령별, 대상별, 직업별특성에 맞게 편리하면서도 멋

더 밝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 나날이 윤색되고 문명해지는 우리의 생활, 보다 좋아질 래일을 설계하는데서 산업미술의 역할은 자못 크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들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재능있는 창작가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착상의 명수, 도안창작의 1번수로 소문난 천영일창작가도 있다.

##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산업미술분야의 재능있는 창작가

## 명도안으로 되기까지

기자가 천영일창작가에 대해 알게 된것은 얼마전 중앙산업미술국 전시회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형의 무궤도 전차형태도안, 5t급화물자동차형태도안, 지하철도차 1호형태도안, 삼지연강자가 투쟁산공방마크도안, 플라 품들어판마크도안, 평양기초 식품공장마크도안, 아동놀이장형 성안을 비롯하여 전시된 상표도안, 광고도안, 마크도안들을 깊은 감흥속에 돌아보던 기자는 무척 인상깊은, 훗날에는 말갈기를 형성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 앞에서 절음을 멈추었다.

조선화단본질로 달리는 말의 운동감을 박력있게 형상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은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을 잘 보강한것으로 하여 볼수록 경탄을 자아냈다. 안내하던 일꾼이 지난 시기 전국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한 마크도안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들려주었다.

《당시 현상모집으로 출품된 이 도안은 심의원들의 도식적인 안목으로 하여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읍니다. 그때 당선된 24점의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들 중에서 이 도안은 마지막으

로부터 두번째순위에 있었읍니다.》

그러던 어느날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들을 지도해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마크도안을 보시고 도안이 현대감이 나면서도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게 단본질수법으로 잘 형상했다고 하시면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으로 선정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크를 새긴 승마복을 보여주시면서 도안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대상의 본질적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살리면서 주제가 명백하고 한눈에 안겨오게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옷에 새기면 승마복을 상징하게 되고 보급실에 붙이면 승마식보급실을 상징할수 있게 집약화되고 통속화된 이 마크도안이 명도안으로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도안을 찾아주시는 계기로 산업미술창작가들과 일꾼들의 안목과 일본세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에 심취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창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었다.

안내하던 일꾼은 그가 바로 도안창작의 능수로 알려진 형상수법들과 창작기법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남다른 도안감각과 창작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으로 만들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상표도안이나 마크도안창작은 독특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심리적충동을 불러일으키야 하는것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새도안을 창작할 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곤 합니다.》

그는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무려 수백번의 모의를 거듭한다고 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명한 대동강맥주상표도

안과 들쭉살상표도안, 중앙동물원마크도안, 원산갈매안판광자마크도안을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수많은 명도안들은 이런 별같은 창작적열정과 탐구, 기발한 착상이 낳은 산물이다.

《중앙동물원마크도안을 창작할 때 위엄있는 호랑이 모습을 형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정서생활까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중앙동물원을 상징하는 마크는 밝은 양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착상에 기초하여 귀엽게

웃는 짙직한 호랑이를 형상하였습니다.》

원산갈매안판광자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에도 그는 갈매기 날아에는 푸르른 바다와 백사장, 돛배 등 몇가지 요소로 해수욕장의 특성을 재치있게 집약화하여 형상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재능이 가져온 성공의 열매라고 하랴. 보석도 빛을 주어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수 있듯이 인간의 재능도 키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천영일창작가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가 창작한 대동강맥주상표마크도안을 비롯한 여러 도안들을 몸소 보여주며 창작적안목을 띄워주시었다.

《저의 눈앞에는 도안창작의 나날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명단으로 절음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철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성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저에게 무슨 타고난 재능이 있어 착상의 명수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 착상의 날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우리 원수님께서 날아주시는것이였습니다.》

하기에 그는 신인창작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 착상의 리, 그것은 믿어주고 배려주시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시대가 바라는 높이에서 매일 매 순간 탐구와 사색으로 이어가는 불타는 창작열의 열매라고.

오늘도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 더욱 행복해질 생활의 모습을 도안에 담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홍흥식

## 새롭고 기발한 착상으로

기자는 중앙산업미술국과 한 청사에 위치한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천영일창작가를 만났다.

지성이면 영모이는 60대 중년의 창작가, 세월은 그의 눈가에 주름을 새겨주어도 은모이는 지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과 매기가 넘치고있었다. ...

철도설계의 가정에서 태어난 천영일은 어렸어부터 달리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중학시절에 그는 간결한 묘사로 사물의 본질

을 정확히 표현할줄 아는 뛰어난 재능으로 미술전문가들을 놀래켰다.

그후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에서 배운의 나래를 쫓아 그는 전문적인 상표도안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이다. 훌륭한 상표는 상품의 문화성과 예술성을 높여준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명한 대동강맥주상표도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2)

보통강반에 휘날어진 베드나무풍경

예로부터 평양은 베드나무가 우거진 곳이라고 하여 류경이라고 불려왔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가면 수양버들 휘날어진 풍경을 볼 수 있다.

베드나무아래를 거닐며 느끼는 정서는 참으로 매혹적이다. 이런 풍치가 있어 꽃새들도 다투어 날아와 깃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삼절을 비롯한 현대적인 봉사자기 등이 한눈에 안겨 온다. 베드나무는 빨리 자라고 물기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므로 강기슭과 개울기슭에 보호숲으로 심으며 가로수로도 심고있다.

무는 여러가지 목재와 종이 원료로 쓰이며 속껍질과 꽃은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약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새기와 새기를 이어오며 평양의 자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베드나무에는 잊지 못할 사연이 깃들여있다.

고 하시며 가로수로 베드나무를 심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높은 뜻에 의하여 평양에는 민족성질은 《베드나무거리》라는 거리가 름도 생겨나게 되었다.



삼복철 누구나 찾는 단고기장

무더운 삼복철에 사람들이 먼저 찾는 음식은 무엇일까? 시원한 냉면?... 물론 그것도 옳다.

하지만 삼복철에는 뽕이워니해도 뽕을 철철 훌리며 먹는 뜨끈한 단고기장이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장되어야 달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배가 부르도록 푹 삶은 단고기를 무더기 담은 단고기장이며 노르끼레한 조밥 그리고 단고기밭죽, 단고기등심찜, 단고기갈비찜, 단고기위삼 등 갖가지 단고기 요리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을 들게 하고있다.

삼복더위에 단고기장을 먹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이다. 민족고전인 《동의보감》에는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조절하며 골수를 맑게 하며 머리, 무릎을 덥게 하여 아픔을 멎게 하고 양기를 돌린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삼복철인 요즘 단고기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삼복철인 요즘 단고기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우리나라와 만민 신정관책임자는 단고기장을 맛있게 끓여 자면 단고기피를 깨끗이 뽑아 비린내를 없애야 한다고, 단고기를 지나치게 푹 삶거나 설게 삶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단고기장의 죽물은 투명하면서도 갖풀이 생길 정도로 농도가



천연기념물

고성참대밭, 창터소나무무리

고성참대밭 고성참대는 삼일포의 뒤산기슭과 순화리 칠성고개기슭에 퍼져있다. 참대는 벼과에 속하는 한쌍 잎식물이며 꽃은 60~120년만에 한번씩 이삭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이 소나무림은 단순림으로 되어있는데 크고 오래 자란 나무와 그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이것이 콩고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단고기장을 삼복철보신탕으로, 건강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단고기장을 삼복철보신탕으로, 건강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제일 큰 참대의 높이는 16m, 뿌리목둘레는 58cm, 가슴높이둘레는 55cm이며 나무갓너비는 1.8m이다. 고성일대의 자연리적조건의 영향을 받아 타산한데 기

이름이 헬고 알레르기성이아니를 습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못하다. 차이에 들어있는 많은 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뱀의 몸통을 움츠게 하기때문이다.

이름이 헬고 알레르기성이아니를 습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못하다. 차이에 들어있는 많은 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뱀의 몸통을 움츠게 하기때문이다.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4)

정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척 하며 봉사가 물어놓는 눈무지기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거기 좀 서시우!》 이제 더는 숨박꼭질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것을 알아차린 봉사는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그렇게 됐소이다. 죽은 조상은 조상이구 아, 산 사람이야 살아야 하지 않겠소. ...》 봉사는 면구하여 허허 웃으며 두팔소매를 걸어붙였다. 《우리끼리만 될 숨기고 말하겠소. 마칠 점심때두 다 됐으니 오늘 우리 여기서 점심이나 함께 들시다. 내 노루고기산책을 만들겠소.》 그는 상대의 대답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르르 달려 내려가 눈무지속에서 노루를 파내가지고 올라왔다. 중노루인데 불기짝이 터질듯 살이 찼다. 봉사는 재빨리 장도를 꺼내 뒤다리 한쪽을 때렸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살고기를 얇게 저며 토막쳤다. 그 다음은 튀기거나 삶아서 두루 살피다가 가까운 한쪽을 훑아냈다. 《아아 뭘 자꾸 그러시우? 그게 내 상체몸이라 소주는 안마시고 탁주요. 탁주야 상체한테도 권하는 술이 아니요.》 봉사는 커다란 못대접에다 한가득 술을 따라 먼저 권했다. 《자, 한잔 꼭 내시우.》 《아니 이거 입자 선친앞에 죄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됐소이다. 죽은 조상은 조상이구 아, 산 사람이야 살아야 하지 않겠소. ...》 봉사는 면구하여 허허 웃으며 두팔소매를 걸어붙였다. 《우리끼리만 될 숨기고 말하겠소. 마칠 점심때두 다 됐으니 오늘 우리 여기서 점심이나 함께 들시다. 내 노루고기산책을 만들겠소.》 그는 상대의 대답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르르 달려 내려가 눈무지속에서 노루를 파내가지고 올라왔다. 중노루인데 불기짝이 터질듯 살이 찼다. 봉사는 재빨리 장도를 꺼내 뒤다리 한쪽을 때렸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살고기를 얇게 저며 토막쳤다. 그 다음은 튀기거나 삶아서 두루 살피다가 가까운 한쪽을 훑아냈다. 《아아 뭘 자꾸 그러시우? 그게 내 상체몸이라 소주는 안마시고 탁주요. 탁주야 상체한테도 권하는 술이 아니요.》 봉사는 커다란 못대접에다 한가득 술을 따라 먼저 권했다. 《자, 한잔 꼭 내시우.》 《아니 이거 입자 선친앞에 죄되는 일이 아닌가?》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동물화가 리암

리암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동물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꽃과 새, 짐승을 잘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와 고양이와 새를 그리는 솜씨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의 대표작인 《고양이와 강아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 《한쌍의 기러기》 등이 전해지고 있다.

리암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동물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꽃과 새, 짐승을 잘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와 고양이와 새를 그리는 솜씨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의 대표작인 《고양이와 강아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 《한쌍의 기러기》 등이 전해지고 있다.



속담과 뜻

◆ 악하면 악한 꼴이 있고 착하면 착한 꼴이 있다. 악하고 착한데는 그 결과 차례짐을 이르는 말. ◆ 말 단 말이 장이 쓰다.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은 욕으로 이르는 말. ◆ 사위는 백년손이요, 며느리는 종신식구이다. 사위는 언제나 대가족 어렵고 남의 사람이지만 며느리는 곧 제 식구, 자기 집사람이 됨을 이르는 말.

세 판을 다 지고서

한사람이 장기를 좋아하는 자기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오늘 그 친구와 장기를 몇판 두었나?》 《세 판.》 《그대 몇판 이겼나?》 《그럼 세 판을 다?...》

《첫판은 내가 이겨주지 않았고 두번째 판은 그가 저지 않았어. 그 세번째 판은 비기자고 했는데 그가 끝내 비겨주어야지?》 《그럼 세 판을 다?...》